



‘출판’의 모든 것 소개한 《한국출판의 이해》 출간 준비

편집, 제판, 인쇄, 제책, 원가계산,
유통, 광고, 출판경영 등...
학생들 가르치며 만학의 길,
‘입지전적’ 성취도

대학서 편집실무 강의 통해 ‘출판전범’ 필요성 느껴

다산출판사 강희일(61) 대표가 출판의 모든 것을 망라한 ‘출판 전범典範’의 필요성을 생각해 낸 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부터다. 본래 강 대표는 자신의 모교인 서경대학교에서 4년 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지인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했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최근에도 신학기 출강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수업내용으로 진행하다보니 이제는 학교측이 나서 폐강됐던 출판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일 정도다.

“요즘 학생들은 지루한 걸 싫어하잖아요. 한 번 강의하는데 교재나 책을 보통 서너권씩 다루며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한차례씩 다른 책들을 돌아가며 읽을 수 있도록 나눠주기도 하고요. 졸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취업 등의 실용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지요. 사회적 이슈나 관심 있어 할만한 얘기들도 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들려주기 위해 강 대표의 강의 노트에는 신문 스크랩기사가 빼곡하다. 강의 내용도 지우개와 연필을 사용한 필기로 정리돼 있다. 3시간 강의를 쉬는 시간 없이 채우지만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도 거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출판현장을 직접 체

험하도록 한다. 그런 과정에서 출판편집의 실무를 다룬 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편집 실무가 단순히 교정을 보는 것쯤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출판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작 깊이있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출판에 관해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 교재를 선택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저자 나름대로 강조하는 게 다르다보니 출판의 각 분야를 고루 다룬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원고를 받는 순간부터 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기까지, 출판 과정을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강의도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고요.”

편집부터 제책까지 망라...나름의 ‘출판철학’ 도 담겨

새로 나올 책은 편집, 제판, 인쇄, 종이, 제책, 원가계산, 정가, 유통, 광고, 출판경영 등 출판이라는 작업의 전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판에 관한 국가의 주요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법을 등과 함께 저작권법, 출판인쇄진흥법, 도서관진흥법, 독점규제법, 컴퓨터프로그램법 등 5가지도 다룬다. 그는 “출판인들이 법을 알아야 잘못된 법이 고쳐진다”며 출판 관련법에 무지한 출판인들을 개탄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부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속에 넣었다. ‘한국출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이 책은 이

번 신학기 때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 먼저 선보이고 총체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일반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문사에서 출판과 인연, 학술출판 뜻 품고 다산출판사 설립

강 대표는 소시적에 법문사에서 처음 일자리를 얻으며 출판과 인연을 맺게 됐다. 너덕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 검정고시를 보며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하며 취직할 곳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그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는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스스로 뜻을 두고 입학했기에 2학기 동안 지각 한번 하지 않았다.

법문사에 근무하면서도 8년간은 기획과 영업을 직접 담당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1979년 다산출판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그의 이런 입지전적 스토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 강 대표는 나름의 확고한 '출판 철학'이 있다.

"비슷비슷한 책을 내기보다는 정확한 책을 내야합니다. 유행처럼 반짝 읽히다 없어지는 책이 아닌, 두고두고 읽힐 수 있는 책을 출판하는 데 주력한다는 각오예요. 다산출판사를 처음 창립했을 때부터 품었던 생각입니다."

대를 물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을 출판하는 것을 '출판의 소명'이라 여기는 강 대표의 신념 덕분에 다산출판사는 그동안 책으로 일군 성과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70권이

출간된 바둑 시리즈도 그 중 하나다. 기존 바둑 관련서적은 정자 저자들이 교정 한번 본 적 없고 그저 이름만 빌려준 책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탓이다. "전문가인 저자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책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 서적의 개편을 촉구했다.

"물론 많이는 팔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문고판입니다. 포켓형태로 가격도 낮으니 독자들로서는 덜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에섭니다. 지금까지 22권이 출간됐고 중국, 일본, 대만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급수준의 책들과는 달리, 고급수준의 실력을 다루어서 환영받고 있어요."

다산출판사 바둑시리즈는 저자 인지가 붙어 있는 유일한 바둑책으로 사자(死藏)된 콘텐츠의 활용과 응용을 보여준 예다.

현재 다산출판사는 청소년을 위한 실용서로 채근담, 역경, 도덕경 등 중국명저들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책의 번역을 마쳤다. 이 밖에도 노년을 다룬 시리즈와 음식문화, 그리고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부동산 시리즈도 기획중이다.

"베스트셀러로 시장을 타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저하고는 왠지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출판에 대해 제가 가진 사명감을 스스로 아는 것이지요. 《한국출판의 이해》가 책을 만들고 또 그러한 일을 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홍이현**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_기자

'출판은 인생 그 자체...날로 출판 지망생 줄어 슝'

환갑 지나 받은 석사학위, "이직도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입지전' 주인공으로 언론 대서특필



강 대표의 지난 시절은 인간승리를 담은 소설 그 자체다. 집안이 어려워 정규 과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는 신문팔이, 구두닦이, '이스께끼크' 장사를 하며 5남매의 맏이로서 생활비와 용돈을 벌었다.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자선기관에서 비로소 공부의 '맛'을 알게 됐다. 정석대로라면 중학생이 막 됐을 나이였다.

"1년 반 동안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데 소질이 있었는지 그동안에도 반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곳을 나오면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강 대표는 고등초등학교를 다니며 검정고시에 합격, 덕수상을 거쳐 서경대학교(당시 국제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최근 4년 동안 엔 모교인 서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중앙대학교 신문방

송대학원에 진학해 만학의 열정을 불태웠다. "대학졸업장을 받지 못했을 때는 꿈속에서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배우고 싶은 욕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전체 2학기 반 동안 지각, 결석은 안 해아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학술서적에 관해 썼던 이전의 레포트가 논문을 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논문도 생각 만큼 쉽게 써어졌어요." 강 대표는 지난 2월 17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각종 언론매체에선 이런 사실을 대서 특필하며 화제기사로 다루었다.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 또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출판계에서 일 하려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도 했다. "그렇수록 책을 읽고, 만드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강조한 그는 "조건이 맞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임기를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밟고 싶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홍이현 기자